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8주일
제37권 14호(가해) 2017년 2월 26일

[묵상]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재물과 앞날의 걱정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느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고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들이 오늘 겪는 문제와 어려움과 대결하기를 바라신다.

하루를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오늘 하루를 가지고 있다.

내일은 태어나지 않은 꿈이고,

어제는 손에 다시 쥌 수 없다.

미래는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을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살아가자.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오-

petrus3@hanmail.net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제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프레아(넷째 토요일) 베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오후 1:00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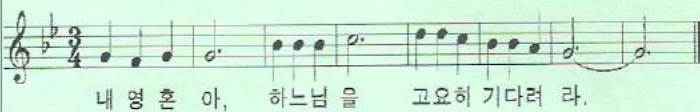
토요 저녁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생) 신정아, 김석기 스테파노
주일 학생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생)

주일 낮 미사	(연) 오원순 안나, 송기분 수산나, 고준희 제임스, 박정미 클라라, 현시영 요셉, 정동점 마리아, 김정례 수산나,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변 안드레아 & 변율리안나, 정 엘리사벳, 문병혁 & 최윤복, 이상신,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심수영, 김정강 세실리아, 이송희 모니카, 한민교 세레자 요한 (생) 손석 스테파노,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황윤재 베드로 가정, 정 베로니카, 박 프란체스카, 이정숙 율리안나, 이영목, 최석원안드레아 & 박민아 로셀리나가정, 신재명 애론, 손혜은 라파엘라, 채은우 발레리, 민원희 안나 오창근 베드로 사제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9,14-15

화답송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
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 4,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
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복 음 마태오(Matthew) 6,24-34

영성체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4. 현대 교회의 좌표(1984-2000년)

4-2. 현대 교회사의 진행 방향

1984년은 한국 교회가 창설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기념비적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교회는 200주년 기념 사목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목 회의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은 1995년에 반포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계기로 하여 한국 순교 복자 103위의 시성식이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신앙 대회 중에 거행되었으며, 9월 20일을 한국 순교 성인들의 축일로 정하여 세계 교회는 해마다 이날 한국의 성인들을 함께 기억하게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인들과 만나 복음을 선포하고 화해를 다지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여 이 시성식을 주관하였다. 사목적 목적으로 한국 교회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교황은 한국 교회 200주년을 함께 기뻐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군사 정권 아래 놓여 있었다. 바티칸 시국의 국가 수반인 그의 방한은 한국 정부와 외교 문제에 속하기도 하였으니, 한국을 방문한 교황은 당시 국가 원수이던 독재자를 '포옹'하였다는 혐의를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목자로서 한국을 찾았고, 한국 교회 사목 회의에 참석하며 시성식을 주관하였다. 각계각층의 한국인들을 만났고, 군부에 의해 학살이 진행된 광주를 찾아 화해를 말하기도 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에 개최한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맞아 다시 한 번 방한하였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표어로 하여 개최된 이 성체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쇄신의 기회를 새로이 다지면서 세계 교회와 연대를 강화하여 나간다. 성체대회가 종료된 뒤에는 그 정신을 계승하여 몇몇 교구에서는 '한마음 한몸 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사회 개발과 사회 복지를 위한 국내 단체 지원을 강화하는가 하면, 서울대교구의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는 세계 교회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31	231	250
봉헌	259	259	264
성체	276	276	281
파견	189	189	228

돈과 재물이 뭉기에

한 부자 노인이 자녀들의 끈질긴 청에 못 이겨 일생의 피와 땀이 얼룩진 그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의 논리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당연히 유산을 남겨주실 텐데,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뜨시기라도 한다면 그 많은 재산을 세금이다 뭐다 해서 많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쏠들리는 자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재산에도 손해가 없으니 일거양득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으니 병원 입원비가 필요할 지경이 되었는데 정작 자식들은 발걸음을 끊고 병든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게 뻔한데 뭐 하러 생돈을 쓰냐는 것이 똑똑한(?) 자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노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노인은 자녀들에게 사실 알리지 않은 많은 부동산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 자녀들은 앞다투어 아버지에게 큰돈을 송금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찾은 후 자녀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과 재물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람도 죽이고 부자지간의 정도 끊어버리고 애뜻한 인간관계도 파괴해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나 재물 역시 세상의 모든 만물처럼 덧없이 사라지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재물에 의지하여 산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불행해짐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이 계셔야 할 최고의 자리를 돈과 재물이 차지한다면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천년만년 살고도 다 소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재물과 하느님을 다 섬기고 싶은 유혹입니다.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형제의 요구에 이기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화를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는 무엇보다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을 먼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쏘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핍은 걱정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걱정은 삶을 비참하게 하고 또한 병들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러니 관참습니다.

목소리 좋다고 노래까지 잘 부르고
몸 좋다고 운동까지 잘하던가요.
잘 먹는다고 요리까지 잘하고
얼굴 예쁘다고 마음까지 고운 건 더욱 아니더군.
한 사람이 전부를 갖진 못하나 봅니다.
장점이란 본래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
금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잘 들어줄 줄 아는
당신의 장점을 응원합니다.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정진욱 노엘	유지아 클라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한경숙 안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신종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미사
 ● 오전8:30, 오후 7:30,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금육과 단식)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 3 (금)- 청년부
 3/10(금)- 대교회
 3/17(금)- 양업회
 3/24(금)- 요셉회
 3/31(금)- 소공동체
 4/7 (금)- 본당 꾸리아
 4/15(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4월 4일(화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희생 애금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금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13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2월25일(토) 오후 6시에 3명의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손해은 라파엘라 ♡신재명 애론 ♡채은우 발레리

-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는 3월1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 해 나눠드린 성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를 2월26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레지오 피정 안내
 ● 일시 : 3월4일 (토요일) 8:30am ~4:00 pm
 ● 대상 : 레지오 단원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 백삼위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3월 17일 금요일 - 3월 19일 일요일 (2박 3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37885 Hwy. 79 South, Temecula, CA 92592)
 ● 대상: 중등부, 고등부
 ● 등록기간: 2월 12일 ~ 3월 12일
 ● 등록비 : \$ 60
 * 주일학교 중등부 사순 피정기간에 함께 봉사할 봉사자 모집합니다.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 310-658-6654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 26일: 육개장 (\$3, PV1,4반)
 *주일학교 : 칠리덕 (6학년)
 ● 3월 5일: 김밥(\$4), 컵라면(\$2, 소공동체)
 *주일학교 : 밋볼 샌드위치(7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숙경 고천용 금동균 김대우 김병태 김성택 김주량 김 준 박종민 박혜정 서은희 신순철 엄영희 오상준 오석만 유보나 이미예 이병우 이일길 이재용 이재철 이현주 이효세 임한나 정규숙 최길주 최희숙 한창주 한혁수 황인중	성전헌금	강미순 강숙경 고천용 금동균 김대우 김주량 김 준 신순철 이미예 이병우 이일길 이현주 이효세 정규숙 최길주 한창주 한혁수 황인중
	합계:\$ 3,800		합계 : \$1,650
주일미사헌금 : \$ 2,542		감사헌금 : \$1,600(이미예, 김대우, 한기찬, 한기웅)	

◆2017년도 Steubenville San Diego 신앙대회

- 일시: 7월 28일 ~ 7월30일(2박3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대상: 현재 8학년 ~ 12학년까지
- 등록기간: 2월 5일 ~ 3월 5일
- 등록비: \$ 200 (할인된 등록비 1인당 기준)
- 등록 서류는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Pay to :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사순시기 친구약성경 완독피정

- 일시: 3월1일~4월17일, 매일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작은예수회 소성전(공동체 상황상10명만 신청받습니다)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김그라시아수녀 ☎ (213)820-6535

◆ 제 18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결혼 적령기 자녀들의 ‘짝짓기’를 위한 ‘부모들의 만남의 장’인 제 18차 청실홍실 모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간: 2017년 3월 12일(일) 오후 5시~ 9시
- 장소: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 회비(식대포함):\$100 (두 사람\$150 - 세 사람\$200)
- 주관: 남가주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 연락처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 37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2017년 2월26일(주일) 낮 1시~5시
27일(월)저녁 6시~10시 중 하루
- 교육방법: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200(당일 지불)
- 장소: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성당사무실 (323) 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김광자 엘리자벳 02/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장환 안토니오 02/11(토) 오후6시 미쿠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2/17(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강인모 데오도시오 02/11(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 크리스 02/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숙 벨라벳다 02/19(일)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02/19(일)오후3시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2/13(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전하현 마리아 02/1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서용숙 에스텔 02/13(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주대중 다니엘 02/11(토) 오후7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이영무 스테파노 02/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02/11(토)오후6시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김명 베드로 02/17(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한애경 올리아나 02/14(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한 지 7년이 되어갑니다. 함께 행하는 개그맨 이동우 씨와 매일같이 만난 지도 7년이 되어갑니다. 잘 알려졌다고는 그 중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삶의 색깔이 바뀐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 앞에서 지켜보는 이동우 씨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옆에서 본 그는 장애에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참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중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이동우 씨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러 제주도에 간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꼭 천만 배우가 되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화에서 이동우 씨가 사람들이 많은 바닷가 한쪽에 앉아 모래를 만지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자 "딱히 할 게 없어서 앉아있어"라며 그가 대답하는 장면에서 참 많은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모두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며 몸을 움직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는 그냥 앉아서 소리만 듣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 딱히 할 게 없는 남자였습니다. 중도 시각장애인이라 점자를 사용하는 법도 익히지 못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도 불가능합니다.

그가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는 평범한 일상도 그에게는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임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비장애인인 사람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꼭 두새벽부터 운동하고, 햇살이 좋은 날에는 베란다에 누워 태닝도 하고, 딸과 영화도 보러 다니고, 책과 시를 사랑하는 속이 팍 찬 남자가 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는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다 보니 불쑥불쑥 그가 시각장애인인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바닥까지 경험해 본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몇 해 전에는 철인삼중경기를 완주하고, 요즘은 재즈 보컬리스트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동안은 외롭지 않다며, 할아버지가 되어도 노래하고 싶다는 꿈도 나누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힘들음을 불평하는 대신 삶의 즐거움을 기꺼이 찾아 나선 그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택한 그를 늘 응원합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그와 함께 많은 청취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함께 즐거울 수 있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이 귀한 인연을 통해 오늘도 저는 많이 배웁니다.

◆ 김다혜 로사 / 방송인

[길을 찾는 그대에게]

성경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당에 신축 기금을 내려고 해도, 주일 헌금을 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무조건 나쁘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지나치면 모자람만큼 못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한 믿음을 두면 이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바로 하느님과 같습니다. 가난은 바로 이상이 되어버린 재물을 멀리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버리고 금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식주의 최소한 필요마저도 거부하고 극단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덕으로서의 가난과 빈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으로서의 가난은 우리 삶에 최소한 필요한 것만을 지니는 것인 반면, 빈곤은 삶에 필요한 것조차 끊어 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곤이 아니라 바로 가난의 덕을 가르치십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망하기를 부추기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필요 이상의 음식 섭취로 살이 찌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나 단식을 하듯이, 하느님을 따르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도 재물에 대한 단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전 한 닢을 헌금으로 넣은 과부를 칭찬하시며 결코 헌금의 많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많아서, 사랑과 믿음이 없어서, 하느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교리상식]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은 미사 전례가 있었나요?

☞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미사 전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사가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시며 아버지 하느님과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미사 전례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파스카에 담긴 뜻

파스카(Pascha)란 ‘통과하다’ 또는 ‘거르고 넘어가다’는 뜻의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유래된 말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1230년경,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두려는 파라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물론 가축들까지 모든 만물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고 나머지 집은 모두 재앙을 당했습니다.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탈출 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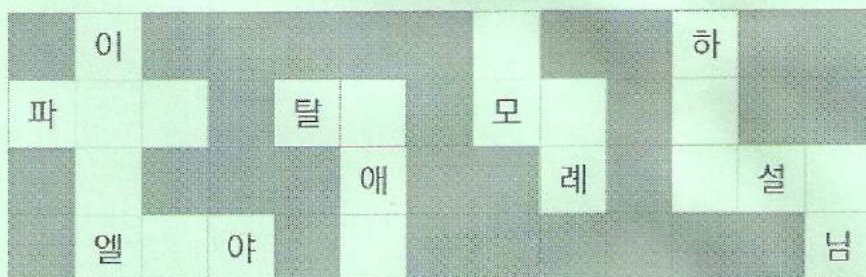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켰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이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 결과 자유를 얻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행위에 감명받은 그들은 이 특별한 축제를 통해 그 사건을 기념하고 대대로 자손에게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걸고서라도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역시 이 파스카의 축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마태 2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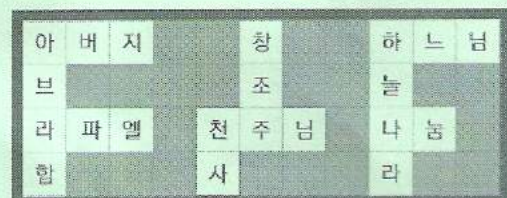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이 만찬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수난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Quiz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



2월 19일자 정답



「성경 속 동식물」 08 하느님 나라에 비유된 겨자씨

겨자는 1년생 초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3m 이상씩 자라 숲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하늘 나라에 비유(마태 13,31-32)하셨으며 또 믿음에 대해 언급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루카 17,6)

시간에 늘 쫓기고 성급하게 결과를 찾으려는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겨자씨가 주는 지혜는 크다 하겠다.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겐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쿠폰지참시)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블라라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벨리야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 중, 고, 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